



## 한 필리핀 조기유학 귀국자의 삶의 궤적을 중심으로 살펴본 영어 경험과 의미\*

김우림 (개인연구자) · 이문우 (연세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pril 3, 2024

Revised: April 18, 2024

Accepted: April 20, 2024

Kim, Ou Lem (First Author)

Email: oulemkim@naver.com

Mun Woo Lee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munwoo@yonsei.ac.kr](mailto:munwoo@yonsei.ac.kr)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 ABSTRACT

**Kim, Ou Lem and Mun Woo Lee. 2024. The meaning of English: Focusing on the life trajectory of a returnee from the Philippin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395-424.**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diverse meanings of English by examining how a Korean returnee from the Philippines has experienced English throughout her life. Two method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First, several face-to-face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 were conducted using a narrative interviewing method. All of the conversations were transcribed. Second, the participant provided and explained an illustration she had drawn depicting her experiences. The collected data were subsequently analyzed using a structural analysis metho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participant initially experienced English as a learner, and later as a user after acquiring fluent English. English enabled her to get along with others in the Philippines, but her fluent English made her feel isolated among her Filipino peers at university. Although learning Filipino helped her relationships with other students, English regained prominence when she started to apply for jobs. She was only able to secure jobs that depended on her fluent English proficiency. Eventually, however, she established her own YouTube channel as a means of embodying her identity both as a fluent English speaker and as a Mass Communication graduate.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meaning of English in a returnee's life within a broader socio-cultural context by provid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turnee's life trajectory.

### KEYWORDS

early study-abroad, returnee, English experiences, life trajectory, structural analysis

## 1. 서론

한국에서 영어의 가치는 언어 본질의 목적인 소통의 창구로서의 가치보다 취업의 유리성(정승열 2014), 노동시장에서의 프리미엄(최형재, 김진영 2009), 문화적 자본(최셋별, 최유정 2011), 학업적 성취 등 각자가 생각하는 이익을 가져다 줄 매개체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영어 열풍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조기 유학은 가장 적극적인 영어 학습 방법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오옥환 2008). 최이진(2018)에 따르면, 2000년 후반으로 들어서면서는 조기유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기유학이 한국사회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이전에 미국과 영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로 가는 중장기 유학이 많았던 반면 현재 보이는 추이로는 조기유학이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시아권 국가들로 확장되었고, 유학 기간도 짧은 방학을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실제로, 김창환(2016)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초·중등학교 학생들 중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19,608명이다. 이렇게 영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한국인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들이 해외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특히 그 경험을 그들의 해외 체류의 목적이었던 ‘영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이렇게 많은 수의 조기 유학생들과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집단이 바로 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이다. 김창환 (2016)의 같은 연구에 따르면, 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은 11,361명으로 상당 수의 조기 유학생들이 유학 중, 혹은 유학 후 본국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지내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민을 가지 않는 한 많은 한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유학생들은 학교 졸업시기에 맞춰 나머지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다(송은하 2012). 하지만,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후 귀국한 귀국자들에 대한 영어 경험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가능성이 높다. 어릴 때부터 영어와 다른 문화를 경험한 이들이 단순히 모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한국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들의 영어 경험을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리핀에서 거주한 한국인 귀국자의 삶에서 영어가 어떻게 경험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영어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만 1세부터 약 20년 동안 필리핀에서 거주하였으며 일본을 거쳐 성인이 된 후 한국에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귀국자의 여러 시간적, 공간적 변화 속에서 영어와 관련된 경험을 찾고 그 경험들이 귀국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러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와 같이, 어린 나이에 해외로 출국하고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한국인이 경험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김미경 2012, 노경란 2009, 안귀덕 2003, 이영선, 이동훈 2009) 그들의 영어 경험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 경험을 통해 영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의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을 넓은 의미에서 조망한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유아기부터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영어에 많이 노출된 귀국 성인은 삶에서 영어를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 2. 귀국자 선행연구

### 2.1 귀국 청소년 연구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또한 증가 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재적응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송은하 (2012)는 한국 귀국 초등학생이 장기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을 경험한 후 겪는 언어 문제, 즉 글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 기본적인 소통 문제들과 한국어 속 한자 이해의 어려움과 사회 재적응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5년간 해외유학을 경험한 세 명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귀국한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 재적응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학생들 모두 환경에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명 중 두 명의 귀국학생은 언어적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지속적인 한자 학습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의 귀국학생은 결과적으로 다른 한국학생들과 공통점을 찾으며 한국에 적응하지만, 역문화 쇼크에 언어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재적응을 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

한국인 귀국자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로는 Hong(2009)의 귀국 학생들을 가르친 세 명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가 있다. 이 연구는 네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사 각각의 영어를 배운 경험에 따라 귀국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이 달랐다. 두 번째는 귀국학생들이 거주한 장소에 대한 교사의 지식에 따라 교사들의 경험이 상이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은 모두 기존의 있던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었다. 교실 안 새로운 귀국학생의 존재가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각 교사가 중요시하는 부분에 따라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부분과 방법이 달랐다. 몇몇의 교사는 귀국학생과 기존 학생들 간의 왕따 문제를 염두에 두었고 또는 귀국자의 한국어 실력으로 인한 한국학교 재적응 문제에 더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박지희(2012)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동안 해외에 체류한 후 귀국한 9명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언어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영어권 국가나 국제학교에서 공부해서 모두 영어가 유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귀국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징을 나열하였는데, 이들은 제한적 이중 언어 능력, 학습 부진, 언어 자아의 미확립, 그리고 소극적인 학습 태도를 보였다. 여기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인지적 문제는 귀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서의 쓰기, 읽기, 문법, 어휘영역의 취약성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기초적인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교실 안 다른 학생들과 현저히 차이 나는 한국어 실력 때문에 한국어 개별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Kim(2013)은 동남아에서 유학한 귀국 청소년을 특정하여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였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졸업 전 1-2년 동안만 해외에 체류한 초등학생들은 한국에서 재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된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에 재진입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국의

원인은 해외에서의 저조한 학업성취와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게 귀국한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졌는데, 이들을 유학실패자 혹은 한국교육 부적응자라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귀국 학생들이 한국에 재적응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동남아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미국과 같이 내부 집단 국가 (inner circle country)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달리 학교와 학교 관계자들부터 부정적인 대우를 받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영선과 이동훈(2009) 또한 귀국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생활에 재적응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더 나아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8명의 2-5년 유학경험을 가진 12-17세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출국의 이유로는 부모님의 직장 이전, 출국 전 학교 적응의 어려움, 진로 준비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귀국 요인으로는 주로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체류의 어려움과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급작스럽게 귀국한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안을 가지고 재적응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과 한국과의 차이점은 한국학교생활에 재적응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주요소로는 교사의 태도, 급우관계, 그리고 수업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귀국 청소년들은 자기정체감 혼란, 학교생활 부적응,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구는 더 나아가 귀국 청소년들이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방법들은 크게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소극적으로 혼자 대처하려는 방법으로 구분되어졌다. 그러나, 소극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이어져 자해, 우울, 그리고 기물파손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귀국 학생들 관련 연구들은 그들이 귀국한 직후의 모습을 관찰했던 것과는 다르게 김영인(2018)은 귀국한지 조금 시간이 지난 중도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3명으로, 이들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중등학교 재학시절 귀국했으며 귀국일로부터 아직 5년이 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연구대상들이 귀국한 후 어떠한 적응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리고 적응하는데 있어 어떤 부분들과 관계들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탐구하였다.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세 명의 귀국자의 공통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사이에서 같은 한국인이지만 그들과 쉽게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국에서 지냈을 때에도 느꼈던 이질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귀국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기에 처음 겪은 상황 때문에 당황하고 많이 불편했다고 하였다. 그런 소외감은 학생들 스스로 주변인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였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입시 상황이었다. 이는 그 어떠한 문제들보다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문제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마지막 공통점은 관계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다. 이들 모두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 가족, 같은 종교인들 등과 같이 위로를 받고 지지적 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한국 귀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 위치한 외국인 학교에서도 목격되었다(김선주 2013). 김선주(2013)는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14명의 7~11학년 귀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귀국 동기,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이들에게 도움을

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출국을 결정할 때에는 부모님들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의 경우 그들은 한국 외국인학교로의 귀국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언어능력과 영어가 그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큰 요소들이라고 지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이들이 학교생활을 더욱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의 사각 지대에 위치한 외국인학교를 공교육의 장으로 불러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2.2 귀국 성인 연구

위와 같이 한국에서 시행한 학생귀국자들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귀국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2000년대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Park 2018). Park(2018)은 중국유학을 경험한 귀국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6명의 3~4년간 중국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대학생은 대학생활에 불만족스럽다는 언급을 만족스럽다는 언급보다 3배 이상 하였다. 불만족스러운 생활의 주된 이유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학업곤란을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우들과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대학교수와의 수직적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맺음 그리고 교육의 질에 대한 실망 및 학점 부담감을 그들이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로 꼽았다.

위와 같은 원인들 외에도 귀국 대학생들은 여러 요인들로 한국에서의 재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2010)의 연구에 따르면, 귀국 대학생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지냈음에도 자신들이 거주했던 외국보다 한국 문화에 더 가깝다고 지각하였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과 태도도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을 동일한 여건의 일반대학생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학 생활적응과 삶의 질 부분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정서적 측면에서는 귀국 대학생들이 더 많이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귀국 대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네 가지 유형 즉,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분류하였는데, 북미지역에 거주한 대학생들은 분리 및 통합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아시아지역에 거주한 대학생들은 동화유형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귀국 대학생들의 과거 해외거주국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한국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거주한 학생들이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주했던 대학생들보다 국내에서 재적응을 하는데 비교적 수월했음을 알 수 있다.

정안숙, 오경자, 오서진, 박규리(2015)는 적게는 1개국, 많게는 5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15명의 귀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 문화 재적응 과정을 조사하였다.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 나온 문화 재적응에 대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도출되었는데, 그들이 해외에 거주한 과거 경험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와 이와 반대로 그들의 과거 경험이 본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의 대학생들은 과거의 다문화적 기억 덕분에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들은 여러 문화에 노출되더라도 강한 한국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 경우의 대학생들은 여러 장소를 자주 옮겨 다닌 경험이 오히려 한 지역이나 사회에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행동이 그들이 한국에서 재적응 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방해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 대학생의 정체성은 장지영, 박규리(2008)의 연구에서도 다루어졌다. 총 78명의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귀국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해외거주 기간이 얼마가 됐던지, 이들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한국인일수록 본인들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은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무리와 지내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귀국 대학생들의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험들과 연관되는 경험들은 조사한 연구이다. 강예지, 김미연(2017)은 다섯 명의 귀국 대학생들의 구직경험에 대한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국제대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현재 한국 대학생활을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대학 졸업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다는 것을 구직 과정 중에 인식하였다. 이 학생들은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보다 한국 취업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 접근성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또한 학교에서의 생활과 달리 한국 직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선 한국어 수업을 듣고 취업에 유리한 전공인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수학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향미, 김혜정, 이양연, 이혜주(2018)도 귀국 대학생의 진로 준비경험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들에게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진로 변경과 방향, 문화와 언어 곤란, 대인관계, 정보력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귀국 대학생들은 구직준비과정에서 한국 학생들과는 다른 여러 차이점을 보였는데, 먼저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능력과 다문화 능력이 미래 진로에 대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이들이 진로 장애물을 경험할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해외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해외로도 구직활동을 하며 유연한 진로 준비와 여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해외 귀국 대학생들은 한국의 이력 중심, 보수적 경향, 경쟁적 분위기를 국내 진로 준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로 말하였다.

하지만 귀국자의 언어능력이 취업시장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연구도 볼 수 있다. You(2017)는 해외 유학 후 한국에서 일반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의 자기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정규 고등교육(학부, 석사, 박사)과정 중 한 가지를 취득한 사람들 중 귀국 후 한국 기업에서 근무 중인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은 영어 사용국가로 유학 가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유학한 나라는 미국이 제일 많고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확산된 유학과 많아지는 유학생의 수로 인해 기업들이 더 이상 이들의 해외 체류경험과 외국어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요소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학과 인력 또한 업무 분야 및 전공 관련 실무경험 및 역량을 준비하여야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과는 영어능력이 구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다른 연구들과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었다.

안수진(2012)은 청소년기에 해외에서 유학을 경험한 후 귀국한 성인들의 정체감과 일반 성인들의 자아 정체감의 차이, 그리고 자아정체성이 이들의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귀국 성인들만 두고 그들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20~30대 중,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대졸 이상의 성인들과 비교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해외 귀국 성인과 일반 성인들의 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둘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자아 정체감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약간의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아정체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녀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미래 확신성에 대해선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들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해외 귀국 성인 남자 집단이며 가장 낮은 자아정체감을 가진 집단은 일반 성인 여성 집단인 것으로 나왔다. 다음으로 이들의 직장 환경 욕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해외 귀국 성인은 자신들의 성취감과 친밀성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고 일반 성인들은 직무의 성취감과 안정감의 욕구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해외 귀국 성인 그리고 일반 성인 모두 자아 정체감 중 주체성이 그들의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연구자는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유학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이들과 일반인들 사이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직장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승민(2012)은 귀국 성인들과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그는 귀국성인들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출국 전 외국에서는 잠깐만 유학생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계획하였다. 때문에 혼자 해외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이 해외를 간 목적은 다양했는데 그 중에 외국 문화경험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결정한 사유로는 졸업을 했거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목적은 가족과의 재회였다. 귀국한 이들이 한국에서 재적응할 때에는 학교 및 직장 규칙 적용하기 그리고 사회생활 적응하기 등의 환경적 적응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다음으로 귀국성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모국정체성', '가족지지체계', '모국친구지지체계', 그리고 '해외파 친구지지체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귀국 성인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 와중에 겪는 언어적 혼란, 새로운 정체성 수립, 모국 정체성 혼란, 모국사회에서의 거리감 등의 재문화충격 경험들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불러일으켜 이들이 재문화적응을 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한편, 김미경 (2012)은 조기유학생들의 귀국 준비와 귀국 후 국내 적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대상들은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하나의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해외유학을 떠난 청소년 중, 유학을 마치고 영구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해 살고 있는 조기유학 1세대들로 총 137명의 20-34세의 성인들을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귀국준비성이라는 충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준비는 귀국기대성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줄여주어 귀국자들이 사회문화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귀국기대성이 정확할수록 국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연구는 조기유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모국접촉과 정확한 모국에 관한 정보제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었다. 유사한 연구로 문경숙, 임재훈(2012)도 11명의 귀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학교 적응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찾아낸 후, 성공적인 한국학교 재적응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문화를 노출시키는 방법과 학부모의 귀국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귀국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성인귀국자는 대부분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귀국학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했다가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경험하게 되는 한국학교 내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다루었고, 대학생의 경우 해외체류경험과 국내 혹은 해외 취업과 연관 지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처럼 아주 어린 유아기부터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한 후 귀국한 한국인이

해외 및 모국에서 생활하고 구직활동을 한 경험을 영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들이 귀국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연구들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리핀에서 약 20년 동안 거주한 한국인이 여러 환경 속에서 겪은 경험들을 이해하고, 그 경험들이 영어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며 영어가 귀국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인 이슬(가명)은 현재 한국에서 성인영어 과외를 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여성이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였다. 첫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어에 대한 경험의 기간이 길고 내용이 풍부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영어에 대한 경험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 한국에서 출생한 그녀는 바로 다음해인 1996년 필리핀으로 가족과 함께 건너가 2016년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마쳤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동안의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은 모두 필리핀에서 이수하였다. 그녀는 처음 대학교 입학은 영어교육학과로 진학을 하였지만 한 학기 후, 커뮤니케이션학과로 전과하였다. 2016년 5월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같은 해 6월부터 바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무역회사에 입사하였으며 11월 일 때문에 일본에 있는 같은 무역회사에서 장소를 이동하여 근무하였다. 하지만 그녀와 일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2017년 2월 무역회사를 퇴사하였다.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그녀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여러 한국영어학원에 지원서를 보내 인터뷰 일정을 잡은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녀는 귀국한 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영어학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영어회화수업을 담당하였고, 가끔 문법수업도 맡아 수업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인 성인영어 과외를 2018년 11월부터 시작했다. 이듬해 2019년 1월에는 영어 교재회사에 입사했는데, 이 회사는 회사상품인 영어교재와 오디오펜을 활용한 영어 학습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한 그녀가 고용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이 회사에서 동영상 구성, 촬영, 그리고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회사 동료들과 대표로 인해 입사 3달만에 퇴사하였다. 퇴사 후에도 그녀는 성인 영어 과외를 계속했고 이때부터 그녀 개인이 운영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그녀의 채널은 주로 어린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학습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 3.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내러티브 인터뷰와 관찰방법, 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우선, 인터뷰는 Jovchelovitch와 Bauer(2000)가 소개한 내러티브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내러티브 인터뷰 방식은 준비단계를 제외하고 총 네 단계를 통해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만한 첫 중심 주제를 미리 생각하여 준비하였다.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는 먼저 연구 참여자로부터 인터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참여자가 이야기를 많이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인터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흥미와는 연관되지 않았다. 두 번째 ‘메인 나레이션’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의 확실한 끝맺음이 나올 때까지는 연구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참여자의 말에 경청하였다. 세 번째 ‘질문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때, 연구자가 참여자가 언급한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이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도의 질문만 하고 참여자의 생각과 사건의 자세한 이유들을 묻기를 삼갔다. 마지막 네 번째 ‘마무리 대화’ 단계에서는 모든 인터뷰를 마무리한 후 녹음을 멈추고 인터뷰 내용 중 궁금했던 부분들을 자세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이외에도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5주에 걸쳐 총 7번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면담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자주 방문하는 한 카페로 참여자가 성인 영어 과외를 하는 곳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그 장소가 참여자에게 익숙해서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장소였고 면담 시 대화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다. 면담을 시작할 때부터 언제든지 원하면 면담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는 어떠한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면담에서 수집하지 못한 자료들은 전화나 문자 등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인터뷰 외에도 참여자에게 자신의 영어 경험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직관적인 그림을 이용하면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더욱 용이할 것이고 면담에서는 듣지 못했던 참여자의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3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을 마친 후 먼저 모든 인터뷰 내용 전사 작업을 하였다. 최대한 연구 참여자가 말한 모든 말들을 전사하였는데, 인터뷰가 참여자 편의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다. 연구자는 전사된 모든 인터뷰 자료를 반복해 읽어가면서 연구 문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표시하고, 인터뷰 당일에 물어보지 못했지만 추후에 연구 참여자에게 추가질문을 할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였다. 더불어 그림에 대한 참여자의 설명을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와 연결해가며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모든 전사 작업 이후 구조 분석 (Structural analysis)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Jovchelovitch and Bauer 2000). 먼저 참여자가 말했던 이야기들을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이때 사건이 일어난 시간, 장소, 맥락 등을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이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해석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제공해준 자료가 너무 방대했기에 직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처음엔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참여자가 거주했던 장소를 구분 지어가며 자료를 이해하였다. 자료를 반복해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 단어와 구절을 서로 연관 짓고 공통점을 찾았다.

그다음,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참여자가 겪은 사건의 설명과 이유들, 사건이 이야기되어진 배경들, 그리고 사건과 연관된 참여자의 가치와 판단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참여자가 직접 그린 결과물과 그녀의 이야기를 비교해가며 경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연구 질문의 답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크게는 두 분류로, 그리고 각 분류당 또 두 가지 주제, 총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다음,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네 가지 주제와 연관되는 네 가지 경험의 의미, 즉 두 번째 연구 질문의 답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수집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잘못된 정보나 오류, 혹은 원치 않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신뢰성을 위하여 연구에 기술한 경험과 결과에 대한 참여자 점검 (member checking)을 하였다(Creswell 2017).

## 4. 귀국자의 영어 경험

### 4.1 영어 학습자 및 사용자로서의 경험: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

이슬이 영어를 처음 학습한 시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재학 시절이었으며, 그녀가 본격적으로 영어를 사용한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이후로 보인다. 이슬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국내에서 오래 지내지 못하고, 부모님의 결정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야 했다. 처음엔 부모님과 셋이서 지내다가, 두 명의 동생들이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태어나면서 친인척 한 명 없는 타국에서 다섯 식구가 살기 시작했다. 필리핀에서 처음 지냈던 도시와 동네에는 한국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얼마 후 몇몇의 한국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주거지역으로 이사하고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이슬은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이슬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른 한국 아이들과 지내면서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게 일부러 한인교회도 보냈다.

[발췌 1] 잠깐 한인교회를 잠깐 다녔었어... 어렸을 때는...엄마도 이제 한인 애들이랑 좀 놀라고 보냈었는데... 한인 선교회 있잖아 그런 데서 하는 행사는 다 갔었던 거 같아. 그래서 어릴 때는 다른 한국 아이들이랑 논 게 기억이 되게 많거든? (1차 면담)

이슬의 부모님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분들이 아니었기에 이슬과 이슬의 동생들에게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였다. 조기 영어교육이 인기인 한국의 많은 학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이슬의 부모님은 이슬에게 따로 영어 과외나 학원을 통해 공부를 시키는 일은 없었다. 때문에 이슬은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 주로 집에서는 가족들 한국어로만 소통하고 집 밖에서는 한국인 이웃들과 지냈기에 그녀는 영어나 다른 언어를 많이 배울 기회가 적었다. 그렇게 이슬은 유치원 입학 전까지 한국어 외 다른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발췌 2] 집에서 한국말 쓰니까 이제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영어를 쓰다가 한국말도 쓰고... 집에서는 아예 한국말을 썼지. 근데 이제 그 내가 초반에는 진짜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대. 여기 내가 못 알아듣는 곳인데 내가 왜 가야 해... 그래서 엄청 울었대. 학교 들어가기 전에. (7차 면담)

이슬이 다녔던 사립학교 부속 유치원은 같은 지역 다른 유치원보다 학비가 조금 더 비싼 곳으로 선생님들이 필리핀어 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유치원이었는데, 이슬은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슬은 유치원 입학과 동시에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슬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만난 많은 필리핀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를 할 줄 알았다고 했다. 이때부터 그녀는 집 안에서는 가족들과 한국어를 사용하고 집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국어는 집에서, 영어는 유치원에서 필리핀 아이들과 배웠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약 일 년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전에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발췌 3] 한국에서 수업 들었을 때? 음... 나 영어 안 까먹으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 영어 안 까먹으려고 혼자서 영어로 막 글씨 쓰고... (2차 면담)

한국에서 잠시 학교를 다녔던 당시, 그녀는 영어를 잊지 않으려고 어린 나이에 부단히 노력했다.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기는 했지만 언젠간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이 한국에서 영어를 까먹으면 곤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영어를 말해보고 써 보기도 하면서 예전에 배운 영어를 잊지 않으려 여러 방법을 취했었다. [발췌 1]과 같이 이슬은 한국어를 먼저 사용하였다. 영어는 [발췌 2]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영어가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영어 학습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슬은 [발췌 3]처럼 영어가 필요한 상황이 나중에 올 것을 예상하고 영어를 잊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 4.2 영어 학습자 및 사용자로서의 경험: 영어와 필리핀어를 하는 한국인

이슬은 한국에서 약 일 년간 생활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 전에 다녔던 곳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였다. 일학년 때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학교에 있어 같은 3학년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슬의 영어실력이 부족한 나머지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이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적응을 하고 이슬은 무사히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였다. 초등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대부분의 친구들과 같이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로 간 이슬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언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내에선 영어만 사용해야만 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어를 잘 못해도 학교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자 이슬은 필리핀어 (Filipino) 과목을 학습해야 하는 필요가 생겼다.

[발췌 4] 원래는 하이 스쿨 때는 우리 학교에서 영어만 쓰게 했어. Tagalog(필리핀어 중 하나)를 쓰면은 별척이 있었거든? 아무튼 엄격하게 했었어 ... 하이스쿨 때 어쩔 수 없이 Filipino Class는 있었다? Filipino class를 거의 그냥 딱 passing... just passing 에만 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는데, 일단 필리핀 Tagalog 문법을 알면 좋으니까 그냥 tutor 한번 했었어. 근데... tutor 하면서 일단 문법이 조금 잡힌 상태에서 나중에 친구들이랑 Tagalog를 쓰려고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익혀지더라고 (2차 면담)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이슬은 영어 과목 포함 어떠한 학과 과목도 과외를 받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과외를 받은 과목이 Filipino였다. 정해진 점수를 받아 통과해야 유급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외를 받으면서 기본 Filipino 문법을 배웠다. 한국인이었지만 Filipino를 배울 때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필리핀어를 영어로 혹은 그 반대로 번역해가며 새로운 언어를 익혔다. 덕분에 학교에서 Filipino 과목은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필리핀 단어들은 주로 주위 필리핀 친구들을 통해 배웠는데, 과외를 하면서 Filipino 문장의 기본 구성을 알게 되어 이후 대학교에서 만나 필리핀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슬이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이슬 말고도 한국인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필리핀 친구가 많은 이슬과는 많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인처럼 보이는 외모로 인해 여러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필리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인은 영어도 못하고 학습능력도 뒤떨어지며 다른 학교 친구들과 못 어울릴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슬은 이러한 인식은 자신과는 달랐고 본인이 다른 한국인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보다 뒤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노력했다.

[발췌 5] 근데 약간 한국인인데, 그런 게 있었어. 아 우리 학교 안에 한국인은 조금씩 있었잖아. 근데 그냥 한국인이었으면 상관은 없는데 내가 딱 나는 한국인인데, 내가 딱 나는 한국인인데 나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보이려고 했던 거 같아. 난 주눅들지 않았다 약간 이런... (2차 면담)

이슬은 고등학교에서 여러 편견에 맞서 원활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데 영어실력은 장애가 되지 않았고, 언어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BGB (Boys and Girls Brigade) 활동을 꼽았다. BGB는 Boys and Girls Brigade의 약자로 이 활동은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 방법을 터득하고 리더십을 키우도록 훈련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이슬은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귀는 방법을 배우고 주위 사람들과 협동하고 그들을

리드하는 경험을 했다. 그 후 학교 여러 활동에서 여러 번 리더 역할을 도맡아 하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는 친구와 함께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PRO(Public Relations Officer)라는 직책을 맡았고 이 경험을 시작으로 이슬은 정식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필리핀어를 조금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일을 좋아하게 된 이슬은 대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대학교에는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고 그 학생들은 모두가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외국인이면서 유창한 영어를 자신 있게 하는 이슬을 본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슬을 부담스럽게 대하였다. 고등학교 때 조금 배운 필리핀어 실력으로는 몇몇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필리핀 친구들과 대하기 위해선 더 큰 노력이 필요하였다.

[발췌 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어만 사용해도 되었던 상황에서 살았던 이슬이었지만, 고등학교 성적을 위해 Filipino를 배우기 시작하였다.[발췌 5]에서 말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싫었던 이슬은 BGB 활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위 집단에 속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대학교에선 이슬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더욱 부각이 되면서 필리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필리핀어를 더욱 열심히 배워야 했다.

#### 4.3 영어 능력자로서의 경험: 다양한 영어와 관련된 직업

대학교를 다녔을 당시부터 졸업 후 현재까지 여러 직업을 가지면서 이슬은 영어를 잘하는 ‘영어 능력자’로 타인으로부터 인식되었다. 전부터 이슬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필리핀으로 한국인 손님들이 오면 그들의 통역을 곧잘 맡아서 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영어 실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다.

[발췌 6] 한국에서 게스트가 오시면은 통역을 내가 맡았어. 영어를 바꾸는...  
그래서 약간 그 때부터 약간 이슬이 영어 할 줄 알아서 엄청 부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2차면담)

한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하면서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게 되고 한국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경험이 반복되자 이슬은 본인의 영어실력이 한국에서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어로 말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었고, 자신의 영어능력이 한국인으로서 장점이라고 인식되자 이슬은 대학교 전공 또한 영어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는 이슬에게 영어 관련 전공 중에서 영어교육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다. 그렇게 이슬은 현재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고려하기보다 미래에 대학전공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염두 하면서 영어교육학과로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와서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일단 영어만 쓰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다르게 여러 지방에서 온 필리핀 친구들은 필리핀어를 많이 사용했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배우는 느낌을 받아서 재미없었다. 미래를 생각하고 선택한 전공이지만 너무나도 지루했다. 더군다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모든 사람이

대학교 졸업 후 전공을 살려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남은 대학교 시절은 재미없는 공부만 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았었다. 그래서 마침 1학년 때 나왔던 선거도 떨어지고 학과활동과 전공 수업도 재미없었던 이슬은 결국 전공을 바꾸기로 결심하게 된다. 여러 학과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과를 하더라도 이미 들었던 학점도 졸업학점으로 인정되고 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전공을 찾다 보니 Mass Communication 학과가 눈에 들어왔다.

주위에 Mass Communication 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추천해주지 않았지만 학과 커리큘럼을 보고 이슬은 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 말씀 잘 따르면서 시키는 것들을 따라 가는 학생이라면 이제 대학생이 된 만큼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했다. 이슬은 처음으로 스스로 전공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고 미래에 대해 전보다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예상 외로 부모님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슬은 대학교 첫 학기를 마치고 영어교육학과에서 Mass Communication 학과로 전과했다. 하지만,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슬은 자신의 영어 실력과 학과 지식이 같이 쓰일 수 있을까 라는 고려를 빼놓지 않았다.

[발췌 7] 방송학과는 뭔가 분야가 너무 넓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걸로 뭐 내가 영어 쓰는 것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3차 면담)

이슬은 대학교에서 전과를 하더라도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할 때 자신의 영어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한국에서 취업을 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영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심사숙고했다. 자발적으로 영어교육학과에서 나와 다른 학과로 전과하는 와중에도 미래 자신의 직업은 영어와 관련될 것이라는 예상은 계속되었다. 이슬은 그 당시 영어교육학과를 그만두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전공 또한 자신의 영어실력과 무관한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학교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슬은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대입 전 본인은 무조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계획이었는데,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과 어려서부터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이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필리핀을 떠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자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다.

이슬은 직장을 구할 때 처음에는 대학교 전공과 관련된 일을 넣어 보기도 했지만 일단 경제활동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바로 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한 가지 구직활동 중 고려한 것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시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 회사로 들어가 한국인으로서 일하게 되면 필리핀 물가와 상관이 없이 한국 시세에 맞게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는 와중 필리핀에서 한국인 구인구직 정보를 올리는 사이트를 통해 마닐라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이 회사에서 이슬은 상사가 어떤 일을 맡기면 필리핀 곳곳에 연락해 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했는데, 이 때 회사에서 상사와는 한국말을, 일을 할 때에는 필리핀 사람과 영어와 필리핀어를 사용했다. 회사가 필리핀 내에 위치한 만큼 필리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이슬의 영어와 필리핀어 실력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때문에 다른 한국인 직장 동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슬은 원활하게 해결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슬은 처음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 보고서를 한글로 쓰는 일이 많이 어려웠다고 했다. 영어로 자료를 읽고 준비하는 것에 익숙한 이슬은 한국어로 문장을 작문 하는 것부터 난관이였다. 회사 내 필리핀 동료들과 회사 밖 필리핀 거래처들과 소통하는 것엔 큰 장애는 없었던 반면, 한글로 한국인들과 소통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필리핀에서의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다. 이슬은 현재의 직장생활과 업무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이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같은 회사지만 일본의 직장으로 옮기면 생활이 더 안정적인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마닐라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몇몇의 직원들과 일본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였다.

[발췌 8] 그래 가지고 ‘일본에...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나는 일본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면 얼마나 그냥 혹 하겠어. 해외에서 일하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 다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나는 어 일본에 이거는 완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차 면담)

나라를 옮겨가며 근무지를 바꾸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았던 이슬은 지금이야말로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이슬은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막상 일본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일본에 막 도착했을때에는 색다른 환경이 즐겁기만 했는데 필리핀 회사에서 일본으로 넘어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소식이 없고 일본에서 월급을 3개월 동안 받지 못하게 되자 이슬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회사가 나아질 기미도 안보이고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힘들어진 이슬은 퇴사를 결심한다. 퇴사를 결심했지만 일본어는 잘 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적은 일본에서 또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자 그녀는 가까운 자신의 고국 한국에 갈 생각을 한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일을 하고 싶었던 그녀는 일본 회사 숙소에서 퇴사를 하기 직전, 한국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영어학원을 알아보았다.

이슬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영어 학원 면접을 보러 다녔고 두 번째 학원에 들어가 인터뷰를 보고 수업 시연을 한 곳에서 면접을 본 날 바로 그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직장을 구한 이슬은 그 학원 근처로 집을 계약하고 그 학원에서 약 2년 간 근무하였다. 일본에서부터 영어 학원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도 쉽게 생겼다. 오후에 출근을 하고 밤늦게 야근까지 마치고 퇴근하는 일상에 너무 지치자 이슬은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된다. 학원에서의 학부모님들의 수업에 대한 심한 간섭, 자녀의 부진한 학습 성취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학원 커리큘럼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슬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말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았다.

영어 학원 다음으로 이슬은 사업아이템이 괜찮아 보이는 한 회사에 지원하였다. 이 회사는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영어 교재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영어도 잘하면서 Mass Communciation을 전공한 이슬은 이 일이 자신에게 매우 적합한 일처럼 보였다. 이슬은 첫 면접 때 본인은 촬영하는 일과

영상 출연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고 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영상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이슬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영상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구상하고 촬영하는 일이 너무 재밌었다고 했다. 입사 전 있다고 했던 영상 편집자는 없어서 이슬이 직접 낮은 사양의 컴퓨터로 영상을 편집했어야 했지만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재밌게 했다. 이전 직장들과는 다르게 영어능력 외 자신의 능력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슬에게 의미가 컸다. 주로 어린이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했는데, 회사의 영어교재를 더욱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3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이 힘들어지고 편집자도 구해지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 또한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고 회사 사람들도 자신의 일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영어교재 오타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장을 보고 이슬은 더 이상 이 회사에 머무를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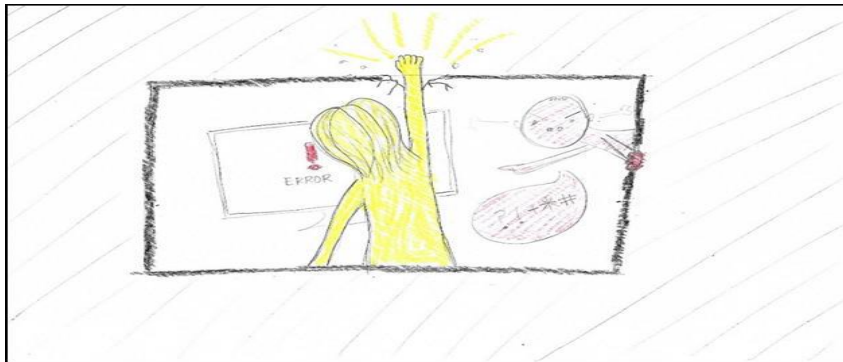


그림 1. 영어교재 회사에서 영상을 제작 과정이 불만족스러운 모습

위의 그림은 이슬이 회사에서 지시한 영상제작 업무를 하지만 그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린 것이다. 이슬은 사장의 지시와 그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서는 자신을 그림 가운데 네모 상자를 부수는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슬은 앞에 있는 모니터의 Error 표시와 오른쪽 이슬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장을 빨간색으로 색칠했다. 그 이유는 이슬이 이 회사를 관두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 저성능 컴퓨터와 사장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오른손으로 부순 네모 상자 밖은 검은색 빗금으로 그려졌다. 상자 밖 빗금은 이슬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을 뜻하는데,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전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결국, 자유로운 생활을 갈망하던 이슬은 영어교재 회사를 그만두었다.

영어학원에서 일했을 때 보다 일에 대한 보람을 더 크게 느꼈던 일거리를 제공해준 직장이었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그 환경에서 일하기 싫어 그녀는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다 성인 영어회화 과외를 계속하게 되었다. 성인 영어 과외를 처음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만난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다. 친구는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배울지 고민하던 중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이슬을 만나게 되었고 이슬은 혼자 수업을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그룹과외를 하는 것을 추천했다. 그렇게 친구 세 명과 이슬은 한 영어 소셜책을 읽고 거기에 있는 영어 표현들을 익히며 수업을 진행했다.



이슬이 소설책으로 수업한 이유는 우리말에도 줄임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trendy한 단어들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영어 학습교재에도 여러 좋은 표현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가끔, 현지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현재 많이 사용되지 않는 영어표현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슬이 선택한 소설책은 비교적 신작이고 미국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쉽고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배우기에 적당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 드라마보다 책을 더 선호하는 것은 드라마는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는 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국인이 그 속도를 맞추기 힘들다. 하지만 책으로 학습을 할 때에는 학습자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어 본인 학생들에게 더 적합하게 보였다. 그래서 실력이 다른 세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슬과 학생들은 수업 교재로 소설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처음 친구들과 책으로 그룹과외를 시작했을 때만해도 이슬은 계속해서 과외를 이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과외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불안정 적이고 부모님 또한 이슬이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원했다. 그런데 성인영어 과외를 하면서 이슬은 전에 영어학원에서 가르쳤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어 온 성인들은 학습동기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슬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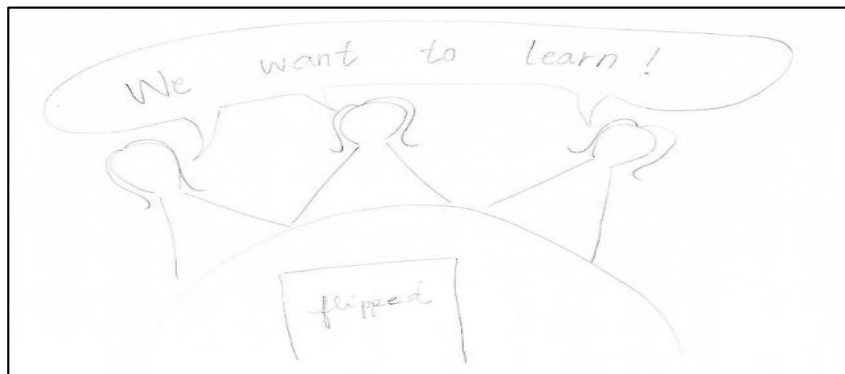


그림 2. 이슬의 첫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위의 그림은 이슬이 자신이 처음 과외 했던 세 명의 학생들을 그린 것이다. 이 학생들은 모두 이슬에게 “We want to learn!”이라 말하며 학습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을 당시, 학생들의 저조한 학습동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경험을 한 이슬은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자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가 다시 생기게 되었다.

영어 학원과 영어 교재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친구들과 과외는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영어 교재회사 퇴사 후 이슬은 본격적으로 영어 과외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데에는 이슬의 첫 과외의 긍정적인 경험이 큰 역할을 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지인들을 모아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들을 구하는 방법도 알게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았고 가르치는 실력도 늘어서 과외비도 인상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면 이들은 첫 수업은 샘플 수업으로 돈을 받지 않고 한 시간 수업을 했다. 그리고 난 후 학생과 시간과 수업 방향이 맞으면 그 이후 스케줄을 잡는다. 초반에는 과외를 주먹구구식으로 수업을 했다면 나중에는 따로 교재도 준비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다. 사용하는 교재는 영어 교재회사에서 근무했을 당시 구매했던 책을 사용했다. 이 교재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지만 이들은 실력이 낮은 어른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발췌 6]처럼 영어를 사용할수록 칭찬을 받았던 이들은 영어관련 학과로 대학교 진학을 하였다. 이 후 전과를 했을 때에도 영어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 [발췌 7].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영어실력과 필리핀어 실력을 내세워 마닐라 무역회사에 가게 되었고, 이후에는 [발췌 8]에 명시된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영어학원에서, 그림 1. 의 영어 교재회사에서, 그림 2. 의 영어 과외 선생님께서 일하게 되었다.

#### 4.4 영어 능력자로서의 경험: 영어 학습을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

이들이 영어 교재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요구대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항상 내가 혼자 하면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회사를 그만 둔 이들은 성인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영어 학원 과장님과 만나게 되었다. 그 때 이들이 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자, 영어 학원 과장님의 남편이 그 영상을 보더니 이슬이가 혼자서라도 이러한 영상 제작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췌 9] 내 유튜브 영상은 찾아서 회사에서 만들었던 거를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 과장님의 남편 분이 그 영상을 보고 이슬이 유튜브 빨리 시작하라고 약간 그 때 유튜브 붐이 있었잖아... 그래 가지고 아 그 유튜브 하고는 싶은데 일단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제일 먼저인데, 그거를 살 여유가 없다 그래서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사 주겠다. 그래 가지고 어 그거를 투자해 주셔 가지고 이제 거의 바로 시작하게 된 거지. (5차 면담)

지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이들은 영상을 만들 용기가 생기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졌지만 시작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양이 좋은 노트북이었다. 하지만 당장에 노트북을 구매할 여유가 없었던 이들은 계획을 잠시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전 직장 과장님 부부가 이슬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녀와 같이 콘텐츠 고민도 해주고 방향도 잡아 주어서 이들은 유튜브를 예상보다 더 빨리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로 영어로 아이들 장난감놀이를 하는 영상을 찍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은 영어를 진짜로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문장의 구조와 영단어를 반복해서 암기하는 방식은 영어학습의 흥미를 감소시킬 뿐더러 학생이 영어를 잘 하게 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영어 학습을 자신의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중점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했다.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용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찾고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이슬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어학습의 모습인 것이다.

이슬이 키즈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유튜브로 수익을 최대한 빨리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신 과장님 부부도 키즈 콘텐츠를 제작하면 다른 것 보다 수익을 내는데 더 수월할 것이라 조언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촬영이나 저렴한 장난감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들었다. 촬영을 위한 장소와 촬영장비들은 이슬의 지인이 도움을 주어 이슬이 혼자 기획했을 때 보다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정책이 바뀌면서 키즈 콘텐츠 규제가 생겨 수익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또한 댓글 기능도 제한되어서 이슬은 자신의 구독자 대상을 변경해야 되는 고민 중에 있다. 이슬은 최근 유아 영어학습 영상을 제작하다가 한번 필리핀어로 한국어를 설명해주는 영상을 업로드 해봤다. 그랬더니 다른 영상에 비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키즈 콘텐츠 규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슬은 유튜브는 어린이의 영어 학습 방법과 이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기획했다. 그런데 유튜브의 상황과 이슬의 생각이 여러 차례 바뀌어 가면서 이슬은 자신의 채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분명한 것은 이슬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여태 이슬이 해왔던 일 중에 가장 즐겁다는 것이다. 이슬은 필리핀에서 한국어로 오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모든 좋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자신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먼저 필리핀에서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외국어로 배우는 과정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서 다양한 학습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쉬웠다고 하였다. 또한 이슬은 영어와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배웠지만, 그녀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책을 보고 문장의 구조부터 배우듯이 필리핀어를 그러한 방식으로 배웠다. 이슬이 외국어를 따로 학습한 경험은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다. 본인이 문법을 먼저 익힌 후 배운 문법을 여러 상황 속에서 반복하며 사용하다 보니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발췌 10] 거기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느낌일까를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를 내가 아는 거를 그냥 전달하는 것 보다. 이 사람의 입장이 뭘까 하고 생각하고 전달하는 거랑 다르니까... (2차 면담)

무역회사를 다니면서는 3개 국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였는데, 이 회사의 경험을 통해 이슬은 조금 더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었다. 영어 학원과 영어 과외의 경험은 영어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이슬이 영어교육에 관해 더욱 깊게 공부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영어 학습 콘텐츠를 쉽게 기획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무리 자신이 영어를 잘 하더라도 본인의 언어능력과 언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은 철저히 다르다고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만약 한국에 들어와 영어교육과 동떨어진 업종의 일을 선택했다더라면 자신은 유튜브 제작을 시작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슬은 영어 교재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결정타였다고 표현하였다.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전까지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고 따로 편집방법을 공부할 생각도 없었지만 피고용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운 기술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슬은 말했다. 이슬은 이 회사를 다녔을 당시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가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뒤, 이슬이 만든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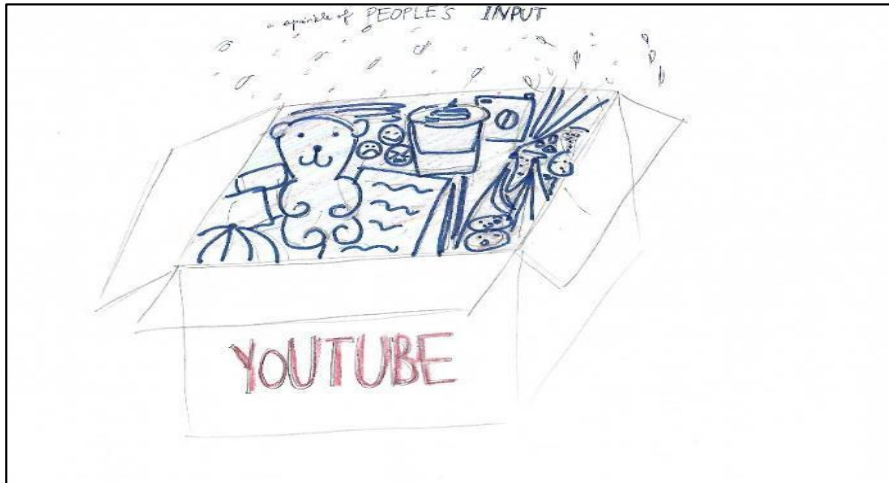


그림 3. 이슬이 생각하는 본인의 유튜브

이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위와 같은 그림으로 묘사하였다. 그림 속 상자는 유튜브 그 자체인데, 이 상자 안에는 본인의 여러 측면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 어린 시절과 장난스러운 성격을 의미하는 장난감과 곰 인형, 대학교 전공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카메라, 좋아하는 피자과 파스타와 과일들, 학습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노트, 본인의 부정적인 면을 의미하는 양동이와 그것들을 치울 수 있는 빗자루, 자신을 보호해주는 우산,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스스로도 아직 모르는 랜덤 상자들이 그려져 있다. 그림 상단에는 Sprinkles of People’s Input이라 적혀 있고 비를 그렸는데, 이는 이슬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슬은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아온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튜브 안에선 이슬은 아무 제약없이 자신이 지향하던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응원을 받은 이슬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것을 결심하였다 [발췌 9]. 영어 학습 관련 영상을 제작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발췌 10]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입장도 고려해가며 유튜브를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슬은 그림 3. 에 표현한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 5. 귀국자의 삶을 통해서 본 영어의 의미

본 연구는 20년간 필리핀에서 지낸 한국인인 이슬이 필리핀에서부터,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이슬의 영어 경험을 통해 이슬의 삶의 궤적을 관통하는 영어의 의미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이슬의 영어 경험과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경험한 학부모들의 자녀의 영어학습에 관한 지나친 관심은 이슬이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슬은 영어 학습을 위해선 학습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슬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 필리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소통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만 한 살이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주한 이슬은 집에서 가족 그리고 한국인 이웃들과 한국어를 쓰며 생활하고 영어를 따로 배우지 않은 무방비인 상태로 유치원에 입학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슬의 부모님은 이슬이 학교에 다니며 영어에 노출이 되면 영어에 통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슬의 부모님은 이슬을 따로 영어 과외나 학원에 보내지 않았다. 이는 환경결정론을 믿는 부모들의 전형적인 신념으로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살게 되면 영어가 저절로 터득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오옥환 2008). 처음엔 영어를 할 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이슬은 나이가 어린 만큼 새로운 환경에 곧 잘 적응하여 결국엔 성공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줄 알게 되었고 무사히 초등학교 입학도 하였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학습동기를 가졌던 이슬은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터득하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녀는 이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영어 노출 속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성공적인 언어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슬은 또 다른 학습 환경으로 부모님의 자녀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녀는 영어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님과의 전화 상담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였다.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상담을 잘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감추고 좀 더 매끄러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한국말을 하면서 영어를 조금씩 섞는 code-switching을 하였다. 이슬은 초등학교 2학년 한국에 약 일 년 동안 거주하며 다녔던 국내 학교에서 의사소통적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때부터 한국어 중간 중간에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code-switching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해결 전략은 외국의 다언어를 사용하는 또래 집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로 Kyrtz(2010)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멕시코-스페인어 이중 언어 유치원 교실에서 멕시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녀들이 code-switching을 하며 절충적 형태의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Evaldsson과 Cekaite(2010) 또한 스웨덴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웨덴어를 제외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의사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이슬과 같은 code-switching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슬은 초등학교 때 사용한 이 방법을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보다 정작 이슬을 더 힘들게 했던 점은 바로 학부모님들의 끝없는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학원에서 상담 그 이상의 일을 요구하여, 그 모든 부담을 학원 강사가 짊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슬은 학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는 학원 강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 인해 학원에서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 이슬은 이러한 상황이 정말 학습을 위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 자주 의문이 들었다고 하였다. Lee(2016)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부모의 영어 학습 지원이 자녀들의 영어 능력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은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이슬은 한국 학원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는데 큰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슬은 자신이 겪은 한국 영어학원에서의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로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둘째, 이슬은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속감과 소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이었던 이슬은 다른 필리핀 친구들과 말이 안 통해 집단에 섞일 수 없어 소외감을 느꼈지만, 영어회화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집단에 소속되었다. 하지만 이슬이 영어를 잘 못하는 필리핀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이슬의 유창한 영어실력이 다른 필리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고 또다시 그녀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슬이 영어를 배우게 된 첫 번째 목적은 필리핀 사회에 소속되어 잘 적응하기 위함이었다. 이슬이 초등학교 때 잠시 한국에 1년간 지낸 후 필리핀으로 돌아오자 이슬은 자신이 학교 친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또래들과 차이나는 영어실력이 눈에 띄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웠지만 막 한국에서 돌아온 이슬에게는 영어보단 한국어가 더 익숙했다. 봉원영(2013)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선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는 그 집단의 소속감과 동질감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처음 겪는 타인과의 불통은 이슬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영어를 더 공부할 동기부여를 하였다. 이슬이 겪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압박감과 사회적 고립 경험은 미국으로 이민 간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흔히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들과 유사하다(Pyon 2012). 하지만 이러한 해외거주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사회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봉원영 2013).

일반적으로, 다문화, 다 언어권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은 또래집단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언어적 노력을 한다(Goodwin and Kyratzis 2011). 그리고 그들이 채택한 언어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경우가 많다. 또래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본 이슬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영어를 더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영어로 대화하고자 할 때 영어를 의사소통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서 이러한 의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MacIntyre and Doucette 2010)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슬은 영어를 익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따라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김영우, 강진 2014), 결과적으로 주위 다른 필리핀 친구들과 지내는데 언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지는 이슬이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이뤄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슬의 유창한 영어실력이 오히려 이슬에게 필리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사립학교를 다닌 이슬은 졸업할 때까지 필리핀 현지 언어, 필리피노 (Filipino)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꼈다.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에서 사용하기로 인정한 언어는 영어이고(Smolicz et al. 2001), 이슬이 다닌 학교는

영어전용정책 (English Only Policy)를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영어만 사용해도 학교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는데, 대학교에 입학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 영어는 타인과의 소통의 창이 되어 주었지만, 대학교에 오자 필리핀 친구들 중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슬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부담스러워했다. 이슬이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자신들도 영어로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필리핀 친구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이슬과의 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현주 2002).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민족 학생들을 캠퍼스 내에서 보는 경우는 늘어가고 있지만(Harris 2017), 이슬의 다른 외모와 언어는 새로운 인간 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와 같이, 유학생이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문화를 주변인들로부터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James et al. 2004)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렇기에 외국인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적, 피부색, 그리고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은 곧잘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이다(Harris 2017). 그런데 고향과 다른 곳에서 자신의 영어실력이 주위 사람들과 의사소통 단절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낀 이슬은 상당한 혼란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이민자와 다른 소수집단이 많은 사회생활 영역 참여에서 지속적으로 외집단으로 분류되고 제외되는 중요한 방법으로 항상 여겨진다(Garcia-Sanchez 2011). 이슬이 속한 사회와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그 곳에서 배제된 느낌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슬은 대학교 1학년 때 학생회 선거에서 진 이유를 자신이 영어로만 선거 운동을 하고 필리핀어를 못한 것에 두었다. 그러자 이슬은 2학년 학생회 선거 운동을 영어로 하는 것보다 필리핀어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인 것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어를 잘 못하던 이슬은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길 결정한다. 이슬이 이렇게 적극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 구사 능력인 인지된 역량 (perceived competence)과 의사소통 불안감(anxiety)과 같은 개인적이고 정적인 요소들이 이슬의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김영우, 강진 2014). 필리핀어를 배우는 것 이외에도 이슬은 이미 배워온 영어 발음을 무시하고 필리핀식 영어 Taglish를 사용하였다. Taglish는 필리핀어 Tagalog와 English를 합친 조어로 영어를 사용하지만 필리핀식 발음과 억양을 가진 언어이다. 필리핀에 영어가 넓게 쓰이긴 하지만 그 발음과 단어 사용은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과는 차이점이 있다(Sharifian 2016). Goodwin과 Kyratzis(2011)의 연구에서 언어가 사회화와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설명한 것처럼, 이슬은 Taglish를 사용하면서 주변인들과 유사한 발음을 구사함으로써 해당 사회집단 내 소속감을 형성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영어는 경제적 도구로서 인식되었다. 이슬은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무렵부터 미래에 직업을 구할 때 영어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감안하고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실제 구직활동을 할 때 다른 직업들 보다 영어를 내세워 구한 직업들의 수입이 가장 안정적이었다. 이는 이슬이 영어 만능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슬은 사실 영어 말고 다른 진로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렇기에 이슬은 자신의 영어실력에 좀 더 의존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슬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전공을 선택했을 당시, 본인이 무엇에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지를 고려하기보단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할 때 유리한 전공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얼른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슬에게 영어란 매우 좋은 경제적 도구였다. 이슬이 선호하는 직업분야는 여타 한국인들도 선호하는 안정적인 직업이었고(정승열 2014), 이슬은 영어교육 관련 직종을 염두에 두었다. 한국에서 ‘영어’는 외국어를 뜻하는 보통명사가 되었고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의무적으로 배우고 대학생들도 영어를 위한 어학연수를 많이 가는 만큼 영어는 영어 광풍 속에 있다는(문강형준 2009)소식은 필리핀에서도 유명했다. 그렇기에 이슬은 이미 한국에서 영어 능력자는 사회적으로 우대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조혜영 2015).

이슬은 또한 초등학교 2학년 당시 잠깐 한국에서 머물렀을 때 영어를 잘하는 본인에게 호의적이었던 친구들과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했다. Baquedano-Lopez 와 Mangual(2011)은 이민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현지 언어에 능통한 경우 자녀들이 전문가 역할을 맡으며 부모를 대신해 번역 일을 한다고 하였다. 이슬도 한국에서 온 한국인 방문객들 통역을 부모님 대신 맡아 하곤 했는데, 그녀가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넌 영어를 잘하니 한국에서는 취업 걱정할 일은 없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고는 했었다. 지속적으로 듣는 본인의 영어실력에 대한 칭찬은 이슬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영어회화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정승열 2014)이슬은 영어를 성공의 사다리 그리고 계급적 돌파구와 같이 간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최새별, 최유정 2011). 그렇게 이슬은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영어교육학과로 진학하게 되는데, 일 년 후 매스커뮤니케이션학과로 전과했을 때에도 한국에서는 자신의 영어 능력으로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항상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 영어 실력과 인증 점수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조혜영 2015). 강예지와 김미연(2017)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귀국자가 한국에서 재적응하며 직업을 구하는 일은 언어능력 이외에도 더 큰 사회적응과 융화의 문제를 필요로 한다. 그렇더라도, 이슬의 우수한 외국어 실력은 그녀가 우수한 인재로 분류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슬은 돈을 하루라도 빨리 벌어 독립하고 싶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전공인 매스커뮤니케이션 관련 직종부터 영어 가능자면 들어갈 수 있는 직장까지 여러 군데 지원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슬이 원하던 지역에서는 매스컴 전공자를 구하는 수요보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필리핀어를 모두 잘하는 사람을 찾는 수요가 훨씬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이슬의 필리핀어와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한국무역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월급과 거주비용지원 복지였다. 이슬은 전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언어 실력으로 입사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회사에서는 이슬의 언어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이슬도 자신의 능력이 회사 내에서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회사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다. 이슬은 당시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원하는 액수의 월급을 받았고 근무환경도 괜찮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급하게 한국에서 직장을 알아 볼 때에도 이슬은 당장에 취직이 가능하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았고 자신의 영어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한국 사회의 영어 광풍의 증거는 커다란 기업형 영어 학원들의 대규모 사업이다(남태현 2012). 이슬은 한국은 영어가 교육 분야를 넘어 개개인의 일상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남미숙 2011, 정은영 2010) 한국에서는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이슬은 한국에는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음에도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교육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박은숙, 장진태 2012). 그리고 결국 한국 영어 학원 강사로 약 2년간 근무하면서 이슬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그녀는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대학교 전공을 살리고 싶어 여러 번 홍보, 마케팅, 광고 회사에 지원했지만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버는 금액보다 낮은 월급 때문에 번번이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영어 학원을 그만 둔 뒤에도 이슬은 영어교재 회사에 입사하고, 성인 영어 과외를 이어 나갔다. 영어교재 회사에 입사하고 영어 과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에는 재정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영어를 무기로 직업을 구할 때에는 홍보회사에 지원했을 때보다는 더 높은 수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슬에게 영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일본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그녀가 해당 국가로 진입하는 장벽을 현저하게 낮추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아닌 영어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다.

넷째, 영어는 이슬이 자아실현을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영어 관련 직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슬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또 다른 재능들을 표현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다. 그런데 이슬은 어린이 영어 학습 유튜브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영상 기획, 촬영, 출연, 편집 등 이전까지 하고 싶었던 활동함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는 이슬의 꿈을 이루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였고 이는 이슬이 영어를 더 열심히 배우도록 촉진시켰다.

영어는 이슬이 자아실현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자아실현이란 Maslow이론의 핵심으로 한 개인이 인간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표현한 상태를 뜻한다(김은아 2011). 안귀덕(2003)은 자아개념이 인간이 성장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발달되는 산물이라 본다. 이런 자아개념은 자신이 한 일을 성찰하면서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얻을 수 있다. 이슬은 자신이 영어로 발표를 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어떠한 결과물을 냈던 경험을 돌아보았을 때, 그 결과물들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학창시절 학생회 활동과 여러 대외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많이 했던 경험과 대학교에서 카메라로 과제물을 제작했던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주위 사람들도 이슬의 영어실력에 대한 끊임없는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 예로 이슬은 한국에서 영어능력자로 인정을 받고 외국어 실력을 앞세웠을 때 실패한 적 없는 구직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타인들이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슬은 자아개념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자아개념은 이슬이 자아실현을 발전해 나가는 데에 좋은 발판이 되었다.

비록 영어 관련 직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슬은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다. 영어 관련 직업을 가지는 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활용하기엔 접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와중에 영어교재 회사에서 회사 교재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슬은 그 일이 너무나도 재밌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사의 지시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이슬이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본 지인이 이슬에게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해 보는 것은 제안했다. 자아실현의 의미 중 하나는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은 사회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여러가지 잠재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개발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안귀덕 2003). 이슬이 처음 고안해 낸 콘텐츠는 자신이 필리핀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면서 경험한 영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영어 학습 콘텐츠였다. 이슬의 영어실력과

영어 학원, 영어 과외, 그리고 영어 교재회사 근무경험은 콘텐츠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슬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이 잠재력을 발현함과 동시에 한국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영어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이슬이 자아실현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행동이 자신의 만족에서만 그치고 도덕적 가치가 배제되었다면 이러한 욕구충족의 행동은 자아실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안귀덕 2003).

자아실현이 도덕적 성숙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자아실현을 한 사람은 정서적 성장을 의미하는 정서적 세련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슬은 외국인으로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었음에도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 곧잘 적응했다. 또한 이슬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슬은 자신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자기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슬은 영어를 활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함으로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었다. 이슬은 이전까지는 영어를 경제적인 가치로만 취급했다면 이제는 본인의 만족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도모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영어를 활용하였다. 이는 이슬이 영어를 전보다 더 열심히 배우는데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오랜 기간 외국에서 체류하다 한국에 귀국한 이슬의 인생 궤적을 꿰뚫는 요소가 다른 아닌 “영어”임을 보여주며 이슬이 겪었던 영어 경험을 통해 영어가 가지는 의미를 개인적인 차원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서 경험된 영어를 알아봄으로써 영어가 주로 경험되는 학교와 영어 학원 뿐만 아니라 그 외 상황에서, 그리고 영어를 주로 학습하는 학생의 입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되는 영어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겠다. 즉,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영어 사용자와 영어의 의미를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예지, 김미연 (Kang, Y. and M. Kim). 2017. 귀국 대학생의 구직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job searching experience of returnee college students in Korea).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3, 71-90.
- 김미경 (Kim, M.). 2012. 귀국 준비성 및 기대성과 귀국 후 적응간의 관계-조기유학 1세대 귀국자를 대상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Repatriation Preparedness, Expection, and Adjustment - A Focus on the 1<sup>st</sup> Generation Korean Returnees from Study abroad).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Ehwa Womans University).
- 김선주 (Kim, S.). 2013. 국내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귀국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Experience of Returnee Adolescents in International Schools in Korea).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 김영우, 강진 (Kim, Y. and J. Kang). 2014. 한국 초등학생의 영어 사용 및 영어 의사소통 의지에 대한 연구 (A study of Korean primary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and their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English). 《영어교육연구》 (*English Language Teaching*) 26-3, 89-112.
- 김영인 (Kim, Y.). 2018. 중도 귀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A Narrative Inquiry on the Adjustment of Korean Third Culture Kids (KTCK)*).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김은아 (Kim, E.). 2011. Maslow 이론에 비추어 본 퇴계의 교육적 자아실현 (*Toegye's Educational Self-realization in the Light of Maslow's Theory*). 박사학위논문 (Doctoral Dissertation),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김창환 (Kim, C.). 2016. 『2016 교육통계연보. ([KEDI] 연구보고서)』 (*2016 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KEDI] Research Report)*),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김향미, 김혜정, 이양연, 이해주 (Kim, H., H. Kim, Y. Lee and H. Lee). 2018. 해외귀국대학생의 진로준비경험에 대한 혼합연구 (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 on third culture kids' career preparation experience).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2, 69-90.
- 남미숙 (Nam, M.). 2011. 영어사교육 결정 요인: 학부모, 학생, 교사, 사교육 전문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Private English Coaching: Perceptions of Parents, Students, Teachers, and Private-sector Specialists*). 박사학위논문 (Doctoral Dissertation), 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남태현 (Nam, T.). 2012. 『영어계급사회』 (*English Class Society*). 파주: 오월의봄 (Paju: Maybooks05).
- 노경란 (Row, K.). 2009.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발달과 태도변화 (*The Development of Explicit and Implicit Race Attitudes in Koreans and Race Attitude Change in the Multi-cultural Age*). 박사학위논문 (Doctoral Dissertation), 이화여자대학교 (Ehwa Womans University).
- 문강형준 (Moon, K.). 2009. 『영어를 잘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Will We Be Happy if We Speak English Well?*). 서울: 뜨인돌 (Seoul: Ddstone).
- 문경숙, 임재훈 (Moon, K. and J. Lim). 2012. “난 내 나라가 낯설어요!” 귀국학생의 국내 학교 적응경험 (“I am a stranger in my own country!” The adjustment process of Korean returnee students to Korean school environment). 《교육심리연구》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3, 621-649.
- 박은숙, 장진태 (Park, E. and J. Chang). 2012.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영어 사교육경험과 학업성취도 및 동기 연구 (Private English education experience, learning achievement and motivation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classes of parents). 《중등영어교육》 (*Secondary English Education*) 5-2, 51-69.
- 박지희 (Park, J.). 2012. 귀국학생을 위한 문식성 신장 프로그램의 개발 (*Development of Literacy Improvement Programs for Returnee Students: Utilizing Balanced Language Approach*).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박현주 (Park, H.). 2002. 불안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nxiety on Korean EFL learners' achievement). 《언어학》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3, 171-191.
- 봉원영 (Bong, W.). 2013. 제3문화 아이들 (Third Culture Kids) 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The understanding of third culture kids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기독교교육정보》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38, 207-233.
- 송은하 (Song, E.). 2012. A Qualitative Study of Korean Returnee Students' Adjustment.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안귀덕 (An, K.). 2003. 『교육환경과 자아실현』 (*Education Environment and Self-Realization*). 서울: 원미사 (Seoul: Wonmisa Press).
- 안수진 (Ahn, S.). 2012. 청소년기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귀국성인의 자아정체감 및 직장적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go-Identity and Job Adjustment of Returnee Adults who Studied abroad in Their Adolescence*).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백석대학교 (Baekseok University).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Oh, K., C. Park and S. Oh).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returnees: A study of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extended Experience of living abroad).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6-2, 125-146.
- 오옥환 (Oh, O.). 2008. 『조기유학, 유토피아를 향한 출국-조기유학의 복합적 기능과 역기능』 (*Early Studying abroad is a Departure for Utopia-Complex Function and Dysfunction of Early Studying abroad*). 서울: 교육과학사 (Seoul: Kyoyookbook).
- 이승민 (Lee, S.). 2012. 귀국성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ult Returnees' Life Satisfaction*).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이영선, 이동훈 (Lee, Y. and D. Lee). 2009. 귀국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country adjustment of Korean adolescents returning back from studying abroad). 《상담학연구》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1783-1804.
- 장지영, 박규리 (Jang, J. and C. Park). 2008. 한국의 귀국학생들의 정체감에 관한 탐색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ense of Identity of Returning Students in Korea).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roceedings of Academic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514-515.
- 정승열 (Jeong, S.). 2014. 대학 재학생의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A Study of Employment Prepa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 Based 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Students*).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정안숙, 오경자, 오서진, 박규리 (Jeong, A., K. Oh, S. Oh and C. Park). 2015. 해외거주 귀국 대학생들의 “모국” 문화재적응 (College students' re-acculturation to their “home” country: Focusing on their cultural identity).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1-1, 1-20.
- 정은영 (Jeong, E.). 2010. 영어 사교육 선택원인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A Study of Parent Motivation in Selecting Private English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조혜영 (Jo, H.). 2015.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 능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beliefs on the importance of English ability in the process of care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취업진로연구》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5-4, 29-56.
- 최섯별, 최유정 (Choi, S. and Y. Choi). 2011.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본 영어의 한국적 의미와 구조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Korean English from the cultural capitalism perspective: Comparison with cultural art). 《문화와 사회》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10, 207-252.
- 최이진 (Choi, L.). 2018. 조기영어교육과 조기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early English education and early study abroad). 《교양학연구》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 207-213.
- 최형재, 김진영 (Choi, H. and J. Kim). 2009.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 실력의 프리미엄 (The wage premium of English skills in the Korean labor market). 《노동경제논집》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2-2, 61-93.
- Baquedano-Lopez, P and A. Mangual. 2011. Language socialization and immigration. In A. Duranti, E. Ochs and B. Schieffelin,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Socialization*. New Jersey: Wiley-Blackwell. 536-563.
- Creswell, J. W. 2017.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Evaldsson, A. C and A. Cekaite. 2010. 'Schwedis' he can't even say Swedish subverting and reproducing institutionalized norms for language use in multilingual peer groups. *Pragmatics* 20(4), 587-604.
- Garcia-Sanchez, I. M. 2011. Language socialization and exclusion. In A. Duranti, E. Ochs and B. Schieffelin,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Socialization*. New Jersey: Wiley-Blackwell. 391-419.
- Goodwin, M. H and A. Kyratzis. 2011. 16 Peer language socialization. In A. Duranti, E. Ochs and B. Schieffelin, Eds., *The Handbook of Language Socialization*. New Jersey: Wiley-Blackwell. 365.
- Harris, J. C. 2017. Multiracial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with multiracial microaggressions. *Race Ethnicity and Education* 20(4), 429-445.
- Hong, Y.-S. 2009. *A Narrative Inquiry into Three Korean Teachers' Experiences of Teaching Returnee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 James, S., J. Hunsley, G. S. Navara and M. Alles. 2004. Marital,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spects of sojourner adjustment: Expanding the field of enqui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2), 111-126.
- Jovchelovitch, S. and M. W. Bauer. 2000. Narrative interviewing. In W. Martin and G. George, Eds., *Qualitative Researching with Text, Image and Sound*. London: SAGE. 57-74.
- Kim, J. 2013. Returning experiences of Korean early study abroad (jogijuhak) students who studied

- in Southeast Asia. *The Language and Culture* 9(2), 101–120.
- Kyratzis, A. 2010. Latina girls' peer play interactions in a bilingual Spanish–English US preschool: Heteroglossia, frame–shifting, and language ideology. *Pragmatics* 20(4), 557–586.
- Lee, M. W. 2016. 'Gangnam style' English ideologies: Neoliberalism, class and the parents of early study–abroad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9(1) 35–50.
- MacIntyre, P. D. and J. Doucette. 2010.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action control. *System* 38(2), 161–171.
- Park, E. 2018. A case study on returnees in their university lives in Korea: Focusing on the students who had stayed with their parents in China. *Studies on Korean Youth* 29(3), 5–40.
- Pyon, H. T. 2012. Understanding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s: Considering their diversity and educational experiences. *Studies of Koreans Abroad* 28, 85–122.
- Sharifian, F. 2016. "Glocalisation" of the English language: A cultural linguistics perspective. *The Asian Journal of Humanities* 23(2), 1–17.
- Smolicz, J., I. Nical and M. Secombe. 2001. English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for science and its effects on the languages of the Philippines. *Contributions to the Sociology of Language* 84, 205–228.
- You, K. 2017. A research on social and self perspective towards highly educated Korean returnees focusing on business context.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6(2) 203–228.

Examples in: Korean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All